

아동의 자기통제와 관련변인간의 인과관계*

-아동의 사려성, 자아개념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중심으로-

The Causal Relations of Children's Self-Control and Related Variables:
Focusing on the Children's Reflection, Self-Concept and Mother's Parenting*

동아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수 이경님

Dept. of Home Management, Dong-A Univ.

Prof. : Kyung-Nim Lee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논의 및 결론 |
| 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III. 결과 및 해석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a causal relations of children's self-control, self-concept, reflection, age, sex and mother's parenting.

The subjects were 86 children of 5-and 6-year-olds, and their mothers and teachers. The instruments were TSCRS, MFFT, Self-concept inventory and Parenting scale.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 (1) Children's reflection, social self-concept and mother's control parenting predicted children's self-control. 20% of the variance of children's self-control was explained by these variables.
- (2) Children's reflection was the first contribution factor and had a direct positive effect on children's self-control.

Children's social self-concept had a direct positive effect on children's self-control. Mother's control parenting had a direct negative effect on children's self-control.

- (3) Mother's affect parenting had an indirect positive effect through children's reflection and social self-concept on children's self-control. Children's sex had indirect effect through mother's control and affect

* 이 논문은 1999학년도 동아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공모과제)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parenting on children's self control. Children's age had indirect effect through children's reflection and mother's control parenting on children's self-control.

주제어(Key Words): 자기통제(self-control), 사려성(reflection), 자아개념(self-concept), 어머니의 양육행동(mother's parenting)

I. 서론

어린 아동은 자신의 행동결과에 대한 고려 없이 욕구나 충동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상황에 적절하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성장기의 유아들로 하여금 상황적 요구에 맞게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함은 유아의 사회화 과정에서 획득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적절한 시기에 이러한 능력을 획득하지 못한 유아들은 행동의 부적절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게 되며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부적응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최근 아동의 바람직한 사회적 적응과 정서, 도덕성 등을 비롯한 인지적, 사회 정의적 발달에 필요한 능력의 하나가 자기통제(self-control)로 지적되고 있다(송명자, 1995; Fitzpatrick-Doyle, 1990). 자기통제연구에 대한 출발점은 자아이론가인 James (1890/1963)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최근 20여년 동안 자기통제의 기본적 개념과 토대를 제공한 이론적 접근은 사회학습이론이라 볼 수 있다. 사회학습 이론적 접근에서는 자기통제를 개인의 단순한 심리내적 특성으로 보는 자아이론, 정신분석적 관점이나 외부의 변인들에 의해 조작될 수 있다고 보는 극단적 학습이론과는 달리 개인의 내적인 인지과정과 외부조건, 상황적 배경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둔다(Harter, 1983). 이러한 상호작용 모형을 기초로 자기통제에 접근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유혹저항(resistance to temptation), 만족지연(delay of gratification), 충동제지(inhibition of impulse), 좌절에 대한 인내(tolerance of frustration)등을 자기통제행동의 중심행동으로 다루었다(송명자, 1995; Harter, 1983). 자기통제 행동의 용어가 각기 달리 사용된

것처럼 자기통제에 대한 정의도 학자들간에 강조점이 다르나 사회학습이론적 접근에 의한 연구자들(Karfer & Goldstein, 1991; Kendall & Wilcox, 1979; Kopp, 1982; Mischel, 1983)의 정의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자기통제란 스스로 상황적인 요구에 적합한 행동을 할 수 있으며 미래의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일시적인 충동에 의하거나 즉각적인 만족을 자제하고 인내하는 능력으로 정의된다(이경남, 2000). 이러한 자기통제는 상황을 검토하고 사려숙고할 수 있는 능력을 필요로 하며 인지과정을 통하여 선택된 행동은 수행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은 억제할 수 있게 될 때 자기통제행동이라 한다. 자기통제가 떨어지는 아동은 사려성이 결핍되어 인지적 문제해결에 산만하여 낮은 학업성취를 보일 뿐 아니라 대인관계에서도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Feldman & Wentzel, 1990; Rose, 1991). 또한 아동의 자기통제가 낮을수록 많은 행동문제가 발견되며(김선희·김경연, 1999) 폭력이나 파괴 등 반사회적 행동과도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러한 성향은 아동기 이후 성인기까지 지속 될 수 있다(Mischel, Schoda & Peake, 1990). 그러므로 아동의 적절한 자기통제발달은 아동이나 청소년의 잠재능력을 충분히 발휘시키고 나아가 성공적인 지적성취와 바람직한 사회적 적응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에 따라 최근 아동의 자기통제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가 주목을 받기 시작하여 이에 대한 연구들이 축적되고 있다.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자기통제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들을 분석한 결과 아동개인의 내적변인과 가족환경변인의 큰 두 범주로 구분될 수 있었다. 아동의 자기통제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개인변인으로는 연령, 성과 같은 보편적 변인 외

에 사려성과 자아개념이 가장 많이 다루어지는 변인들이었다. 먼저 연령에 따른 자기통제발달에 관한 연구(Kopp, 1982)를 살펴보면 대체로 자기통제는 연령의 증가와 더불어 발달한다는데 일치하고 있다. 즉 아동은 2세 경이면 통제의 외재적 요소에 의한 부모나 양육자의 지시나 금지, 순종에 의한 타율적 통제 행동이 나타나며 4세 경이 되면 아동의 내재적 자율적 통제로 전이되어 발달한다. 자율적 통제 능력은 인지능력과 책략생성의 발달과 함께 적절한 사회화 과정을 거쳐 아동후기까지 서서히 계속적으로 발달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Berk, 1997) 그 이후 청년이나 성인의 여러 행동 측면에서도 영향을 주는 비교적 지속적 성격을 보인다. 성에 따른 연구들은 성과 자기통제능력과는 관계가 없다는 연구(허수경·이경님, 1996; Schwarz, Schrage & Lyons, 1983)와 여아가 남아보다 자기통제 능력이 높다는 연구(Kendall & Wilcox, 1979)로 그 결과들이 일관성이 없다. 아동의 자기통제와 관련 변인의 관계연구를 살펴본 결과 자기통제발달의 가장 중요한 인지적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변인이 사려성(reflection)이었다. Maccoby (1980)에 의하면 지금까지 자기통제 행동의 중심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유혹저항, 만족지연 및 충동억제행동의 발달에는 지연행동이나 유혹저항 및 충동억제행동을 위한 효과적인 방략의 발달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이러한 방략은 다양한 선택이 가능한 문제상황의 특수조건에서 문제해결의 타당성을 고려할 수 있는 사려성과 병행해서 발달된다. 즉 상황을 검토하고 심사숙고하여 상황적 요구에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사려성은 자기통제의 주요한 인지적 요인이다. 또한 Kendall과 Wilcox(1979)에 의하면 자기통제는 사려숙고적인 인지요인으로 구성되므로 사려적이고 신중한 아동이 자기통제도 높다고 보았다. 반면 자기통제가 낮은 아동의 지속적인 주위력 결함과 낮은 인지문제해결 수준 및 충동적 행동은 충동적인 인지양식(impulsive cognitive style)에 근거한다고 보고(Kendall & Braswell, 1985)되고 있다. 즉 자기통제가 낮은 아동은 효율적인 인지적 정보처리활동을 도모할 수 있는 사려적 사고가 결핍되어 지적 문제

나 실생활 문제에서 충동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낮은 인지문제 해결수준과 충동적인 과다행동을 보인다는 것이다. 최근 아동의 사려성과 만족지연능력을 살펴본 국내연구(이미라, 1999; 허수경·이경님, 1996)에서도 충동적인 아동보다 사려적인 아동의 만족지연능력이 유의하게 높음이 밝혀지고 있다. 이와 같이 사려성이 높은 아동이 자기통제능력도 높다는 선행연구들의 일치된 결과를 보면 아동의 사려성은 자기통제의 중요한 인지적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아동의 사려성과 함께 자기통제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개인적 변인중의 하나가 자아개념, 자아존중감이었다.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자긍감(self-pried) 혹은 스스로의 보상(self-reward)이 되어 행동통제에 영향을 주게된다(Harter, 1983). 즉, 자기통제능력을 요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러한 자아존중감은 자기보상이 되어 환경적 요구가 기대하는 데로 자신의 행동을 적절히 조절하고 통제하게 된다. 아동의 자기통제와 자아개념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관련지어 살펴본 연구에 의하면 아동의 자아개념은 욕구만족지연, 충동억제의 자기통제능력에 대하여 의미있는 설명변량이 나타나 자아개념이 높은 아동이 자기통제도 높다고 보고(Flynn, 1984)되고 있다. 또한 자기통제능력이 아동의 사회화 과정을 통하여 학습될 때 자기확신감과 자아존중감이 같이 증가되며 반면 자기통제가 낮은 아동은 자아존중감도 낮으며 사회적 적응에 어려움을 보여주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Lowerstein, 1983). 이처럼 아동이 자신에 대하여 높이 평가할수록 자기통제도 더 높다는 선행연구들의 일치된 결과는 자아개념이 자기통제의 중요한 변인임을 시사하고 있다. 아동의 연령, 성, 사려성과 자아개념 같은 개인적 변인 이외에 가족환경변인도 자기통제에 영향을 미치는데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가장 빈번히 검증되고 있는 변인이었다. 아동의 자기통제와 어머니의 양육행동과의 관계를 밝힌 연구들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충동통제와 자기통제능력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즉 온정적이고 애정적인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독립

심에 대하여 격려와 지지를 하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아동이 충동과 욕구를 통제하며 환경적 요구에 적합하게 행동을 조절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Silverman & Ragusa, 1991)되었다. 또한 자극적이고 반응적인 애정적 양육행동의 어머니는 아동의 충동통제와 욕구만족 지연능력을 높이는데 중요한 변인으로 밝혀지고 있다(Olsen, Bates & Bayles, 1990). 국내에서도 아동의 만족지연능력과 어머니의 애정적이고 온정적인 양육태도는 관계가 있으며(이수연, 1985) 어머니의 온정적이고 수용적인 양육행동은 아동의 자기조절능력과 관계가 있다고 보고(안미경, 1996)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볼 때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자기통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통제적이고 엄격한 일관성 없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자기통제와 적응에 부적상관을 보였으며(Wentzel, Feldman, & Weinberger, 1991)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은 어머니의 적대적이고 거부적인 양육행동과 부적인 관계가 있음이 보고(안미경, 1996)되고 있어 어머니의 거부적이며 권위주의적인 통제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자기통제와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처럼 부모의 양육행동, 모와 아동의 상호작용의 질은 아동의 사회화 과정에서 자기통제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자기통제에 중요한 개인적 변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려성과 자아개념에도 중요한 변인으로 밝혀지고 있다. 즉 어머니의 애정적인 양육행동은 아동의 사려적인 인지양식과 정적 관계가 있다고 보고(차의화, 1985)되고 있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공인숙, 1989; 박영애, 1995; Maccoby, 1980)들을 종합하면 어머니의 애정, 온정, 관심 등의 애정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높은 자아개념과 관계가 있다는 결과에 일치되고 있다. 그런데 통제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자아개념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Anderson & Hughes, 1989)와 상관이 없다는 연구(김경연, 1987)로 일관성이 없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기통제와 관련변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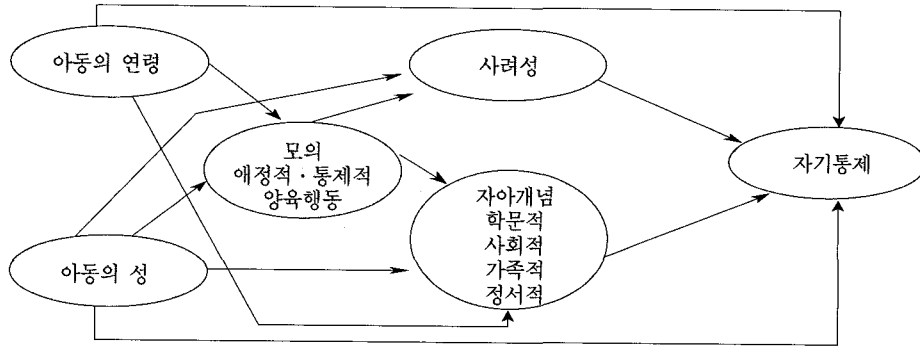
에 관한 연구들은 각각의 관련변인들이 자기통제에 대한 중요성은 지적되고 있으나 아동의 자기통제에 대한 가족환경변인이나 개인적 변인을 함께 살펴본 연구나 나아가 아동의 자기통제에 대한 이들 각 변인들의 관계를 토대로 인과모형을 구성하고 확인하는 실증적 연구는 찾지 못하였다. 초보적인 자기통제능력이 학령전기동안 발달되어 아동·청년기나 성인기의 지적 성취나 바람직한 사회적 적응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자기통제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들간의 인과관계를 살펴보는 연구는 필요하다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유아교육기관에 다니는 5, 6세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개인적 변인으로 연령, 성 및 사려성과 자아개념을 선정하고 가족환경변인으로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선정하여 이들 변인들과 아동의 자기통제간의 인과관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하여 오늘날과 같은 성취지향적인 사회에서 요구되는 자기통제에 대한 아동의 사려성, 자아개념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이해를 높여주고 나아가 아동의 바람직한 자기통제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해주리라 믿는다. 국내에서도 최근 자기통제가 개인의 성공적 성취나 바람직한 사회적응에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이러한 능력을 개선시킬 수 있는 자기통제 기술개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그 효과를 분석하는 많은 연구(김양현, 1987; 은혁기, 1992; 이경남, 1997)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에 비해 자기통제와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므로 자기통제에 대한 아동의 개인적 변인과 가족환경변인간의 인과관계연구는 이를 보완해주리라 기대된다.

본 연구를 통하여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아동의 자기통제와 사려성, 자아개념, 연령, 성과 어머니의 양육행동간의 인과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를 규명하기 위하여 아동의 자기통제에 대한 연령, 성, 사려성, 자아개념과 어머니의 양육행동간의 직·간접관계에 대한 개념적 인과모형을 구성하였다. <그림 1>과 같이 아동의 연령과 성은 어



<그림 1> 아동의 자기통제와 관련변인의 가설적 인과모형

머니의 애정적·통제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려성, 자아개념과 자기통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만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려성 및 자아개념을 매개로 하여 자기통제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되었다. 어머니의 양육행동, 아동의 사려성, 자아개념은 자기통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만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사려성과 자아개념을 매개로 하여 자기통제에 간접적인 영향도 미치는 것으로 보았다.

가 있으리라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연구대상 아동과 그들 부모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부산시내 중류계층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어린이집에서 선정된 만 5세와 6세 아동과 그들의 어머니 86쌍 및 이들 아동의 담임교사(5명)이다. 이들 아동의 연령대상 선정이유는 선행 연구에 의하면 외재적 통제에서 자율적인 자기통제로 전이되는 연령이 대략 4, 5세 경이며(Kopp, 1982) 사려성이 뚜렷하게 증가하는 연령도 5세 경으로 보므로(Messer, 1976) 이에 근거하여 5세 이후 아동에서 자기통제와 관련변인간의 관계의 유의미한 결과

<표 1> 연구대상아동과 부모의 일반적 특성

변 수	구 분	빈 도
연 령	5세 4개월	44
	6세 7개월	42
성 별	남아	47
	여아	39
어머니 연령	30~39	72
	40~49	14
	50세이상	0
어머니 학력	중졸이하	5
	고졸이하	52
	초대졸이상	29
아버지 학력	중 졸	5
	고 졸	41
	초대졸이상	40
소 득	150만원이하	35
	150~300만원	39
	300만원이상	12
아버지 직업	전문관리직	9
	사무직	25
	생산·서비스직	37
	기타 및 무직	15

2. 연구도구

1) 아동의 자기통제

아동의 자기통제를 측정하기 위하여 Humphrey (1982)의 TSCRS (Teacher Self-Control Rating Scale) 을 번안·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TSCRS를 번안하여 어린이집 교사 5명의 내용 타당도를 검토 받았으며 애매모호한 문장으로 지적된 문항은 명확하게 의미가 전달될 수 있도록 수정 보완하였다. TSCRS는 아동의 특정행동을 교사가 관찰하고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개인/인지적 요인과 대인/행동적 요인으로 구성된다. 개인/인지적 요인은 아동이 과제를 수행하는 지속력 및 인내와 자기통제의 인지적 요인에 관련되는 10문항이며 대인/행동적 요인은 대인관계 상황에서 아동이 스스로 통제하는 내용에 관련되는 5문항이다. 본 척도는 5점 리커트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항상 그렇다' 5점으로 구성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자기통제는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는 개인/인지적 요인 .92 대인/행동적 요인 .91 전체 .95로 높게 나타났다.

2) 아동의 사려성

아동의 사려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Kagan(1966)의 같은 그림 찾기검사, MFFT(Matching Familiar Figures Test)를 사용하였다.

MFFT는 2개의 연습문제와 모두 12개의 본문제로 구성되며 각 문항마다 원편 보기의 그림과 꼭 같은 것을 오른쪽에 있는 6개의 그림 중에서 고르도록 되어 있다. 본래 MFFT는 반응시간과 오류수를 기준으로 반응속도는 빠르지만 오류수가 많은 아동과 반응속도는 느리지만 오류수가 적은 아동의 양 집단으로 구분하여 충동적 아동, 사려적 아동의 양분법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양분법은 양분되지 못하는 아동 즉 반응속도가 빠르고 오류수가 적은 아동 및 반응속도가 느리고 오류수가 많은 아동들이 제외되는 방법상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Block과 Harrington(1986)에 의하면 시간준거의 타당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일반적인 성격이나 행동특성

들과 관련되는 준거가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정확성이라고 주장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 근거하여 김유신(1992)은 정답수를 기준으로 사려성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토대로 명확한 시간 제한을 하지 않고 가능한 한 빨리 끝내도록 지시하였으며 한 문항에 오류없이 바로 정답한 경우를 최고점 6점으로 하여 득점하였다. 그러므로 아동의 가능한 점수는 12점~72점까지가 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은 사려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 검사도구는 국내의 아동들에게 실시되어 내용타당도가 인정된바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검사도구의 반분 신뢰도 계수는 .72였다.

3) 아동의 자아개념

아동의 자아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송인섭(1993)이 제작하여 표준화된 자아개념 검사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이 검사도구는 4세~7세 유아들의 자아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여러 특성을 간단하게 나타내는 문항을 잘 표현한 그림으로 구성된 그림카드형식의 검사로 이루어져 있다. 학문적 자아개념 7문항, 사회적 자아개념 7문항, 가족적 자아개념 6문항, 정서적 자아개념 6문항 총 26개 문항 2점 리커트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은 보다 더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송인섭(1993)은 검사도구의 신뢰도를 학문성 .77, 사회적 .69, 가족성 .80, 정서성 .83으로 보고하였다.

4) 어머니의 양육행동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박성연·이숙(1990)의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 중에서 애정 및 권위주의적 통제 영역 각 9문항씩을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5점 리커트로 구성하였으며 애정적 영역의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는 자녀에게 더 애정적이며, 권위주의적인 통제 영역의 점수가 높을수록 권위주의적인 통제적 양육행동을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애정적 양육행동 .87 통제적 양육행동 .72였다.

3. 조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연구는 2000년 1월7일에서 29일까지 부산시내의 한 어린이집에서 실시되었다. 아동의 자기통제를 측정하기 위해 담임교사에게 연구의 목적과 측정방법을 설명하고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각 교사에게 하루에 2~3명씩의 아동을 측정하도록 하였으며 배부 2주 이후 모두 함께 회수하였다. 아동의 사려성과 자아개념 검사는 어린이집 내의 조용하고 독립된 방에서 개별적으로 실시되었다. 검사가 실시되기 전 아동의 이름, 성 및 아동에게 친숙한 질문을 하여 아동과 라포우를 형성 하였다. 각 아동에게 소요된 검사시간은 사려성 검사 10분~15분, 자아개념 검사 10분 모두 20분~25분이 소요되었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아동 편으로 어머니용 설문지를 배부하고 일주일 내로 회수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를 통하여 나타난 자료의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연구대상 아동과 부모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각 검사도구와 척도의 신뢰도를 산출하였다. 연구문제의 검증을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 관계분석,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과 경로분석(Path Analysis)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아동의 자기통제, 사려성, 자아개념, 연령, 성과 어머니의 양육행동간의 인과관계

1) 상관관계분석

아동의 자기통제, 사려성, 자아개념, 연령, 성과 어머니의 양육행동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분석을 산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 의하면 아동의 자기통제는 사려성($r=.30, p<.01$), 사회적 자아개념($r=.30, p<.01$) 및 성($r=.26, p<.05$)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r=-.23, p<.01$)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즉 아동의 사려성과 사회적 자아개념이 높을수록 남아보다는 여아가 자기통제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통제적일수록 아동의 자기통제는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아동의 사려성($r=.28, p<.05$)과 사회적 자아개념($r=.27, p<.05$)은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애정적일수록 아동의 사려성과 사회적 자아개념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아동의 연령은 사려성($r=.40, p<.01$)과 정적 상관이 나타났으나 학문적 자아개념($r=-.23, p<.05$), 가족적 자아개념($r=-.27$,

<표 2> 아동의 자기통제와 관련변인들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 아동의 연령	1.00									
2. 성	-.05	1.00								
3. 사려성	.40**	-.02	1.00							
4. 학문적 자아개념	-.23*	.06	-.17	1.00						
5. 사회적 자아개념	.04	.22*	.16	.08	1.00					
6. 가족적 자아개념	-.27*	.11	-.08	.29**	.18	1.00				
7. 정서적 자아개념	-.29**	.06	-.16	.49**	.47**	.47**	1.00			
8. 모의 애정적 양육행동	.05	.22*	.28*	-.07	.27*	.20	-.03	1.00		
9. 모의 통제적 양육행동	.23*	-.35**	.06	-.09	-.16	-.11	-.10	-.28**	1.00	
10. 자기통제	-.01	.26*	.30**	-.12	.30**	-.04	-.00	.13	-.23*	1.00

* $p<.05$ ** $p<.01$

p<.05) 및 정서적 자아개념($r = -.29, p < .01$)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즉 5세에서 6세에 걸쳐 아동의 사려성은 더 높아지나 학문적 자아개념, 가족적 자아개념, 정서적 자아개념은 더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아동의 성은 사회적 자아개념($r = .22, p < .05$)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남아보다 여아의 사회적 자아개념이 더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은 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r = .22, p < .05$)을 보였으며,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은 연령과는 유의한 정적상관($r = .23, p < .05$)을, 성과는 부적 상관($r = -.35, p < .01$)을 보였다. 즉 어머니는 남아보다 여아에게 더 애정적 양육행동을,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또한 여아보다는 남아에 더 통제적 양육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2) 회귀분석

본 연구에서 설정한 아동의 자기통제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들의 직·간접적인 영향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된 인과모형에 따라 각 변인을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종속변인과 그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들을 대상으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중

다회귀분석에서 가장문제시 되는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을 검색하기 위해 독립변인간의 상관계수를 검토하였다(〈표 2〉참조). 독립변인간의 상관계수가 .01에서 .49까지 분포하고 있어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각 종속변인별 인과모형에 따른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3〉과 같다.

먼저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분석한 결과 아동의 성은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아보다는 여아에게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더 애정적이었으며 이 변인의 설명력은 5% 정도였다.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은 여아보다는 남아에게 연령이 증가할수록 더 통제적이었으며 이들 변인들의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에 대한 총 설명력은 17%였다. 아동의 학문적 자아개념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았으며 이 변인의 설명력은 5%정도였다. 아동의 사회적 자아개념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애정적일수록 높았으며 이들 변인은 아동의 사회적 자아개념을 7%정도 설명하였다. 아동의 가족적 자아개념은 연령이 낮을수록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애정적일수록 높았으며 이 변인들의 아동의 가족적 자아개념에 대한 총 설명력은 12%였다. 아동의 정서적

〈표 3〉 인과모형의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B	β	R ²	F
모의 애정적 양육행동	성	2.46	.22*	.05	4.23*
모의 통제적 양육행동	성	-3.08	-.34**	.12	11.73**
	연령	1.90	.21*	.17	8.30**
학문적 자아개념	연령	-.42	-.23*	.05	4.74*
사회적 자아개념	모의 애정적 양육행동	11.74	.27*	.07	6.50*
가족적 자아개념	연령	-.36	-.28**	.07	6.69*
	모의 애정적 양육행동	2.54	.21*	.12	5.58**
정서적 자아개념	연령	-.39	-.29**	.08	7.60**
사려성	연령	6.06	.38***	.16	15.51***
	모의 애정적 양육행동	.37	.26*	.22	11.82***
자기통제	사려성	.48	.28**	.09	8.50**
	사회적 자아개념	3.01	.22**	.16	7.71**
	모의 통제적 양육행동	-.63	-.21*	.20	6.74**

*p<.05, **p<.01, ***p<.001

자아개념은 연령에 의해 8%정도가 설명되었으며 6세보다는 5세가 정서적 자아개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사려성은 아동의 연령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애정적일수록 높았으며 이들 변인들은 아동의 사려성을 총 22% 설명하였다. 이들 변인들 중 연령이 더 큰 설명력을 보였다. 아동의 자기통제는 아동이 사려성이 높을수록 사회적 자아개념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덜 통제적일수록 높았으며 이들 변인들은 자기통제를 총 20% 설명하였다.

3) 경로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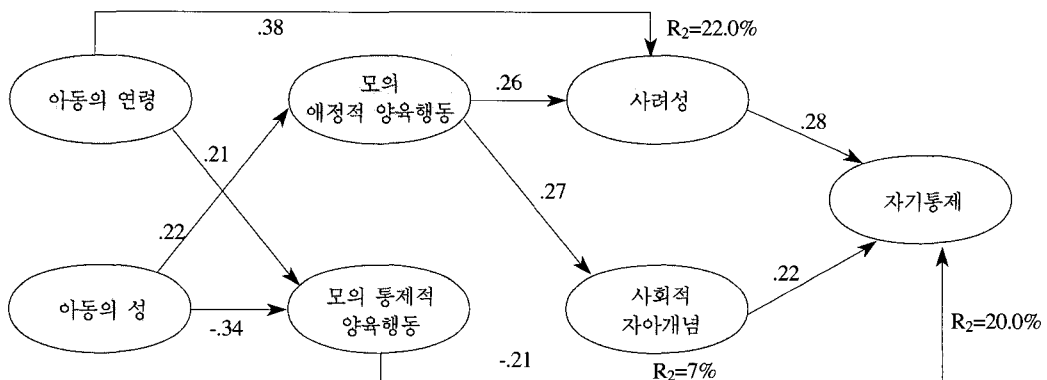
회귀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인과모형에 따라 경로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자아개념 하위영역 중 자기통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학문적 자아개념, 가족적 자아개념 및 정서적 자아개념을 삭제하여 모형을 단순화시켰다. <그림 2>에 제시된 것처럼 아동의 사려성은 자기통제에 직접적으로 가장 큰 영향($\beta = .28, p < .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아동의 사회적 자아개념이 자기통제에 직접적 영향($\beta = .22, p < .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은 자기통제에 직접적인 영향($\beta = -.21, p < .05$)을 주지만 간접적 영향은 발견

되지 않았다.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사려성($\beta = .26, p < .05$)과 사회적 자아개념($\beta = .27, p < .05$)을 통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연령은 자기통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아동의 사려성($\beta = .38, p < .001$)과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beta = .21, p < .05$)을 통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성은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beta = .22, p < .05$)과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beta = -.34, p < .01$)을 통하여 자기통제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직접적인 영향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각 변인들이 아동의 자기통제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아동의 자기통제에 대한 각변인의 인과효과

독립변인	인과적 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아동의 사려성	.28	-	.28
아동의 사회적 자아개념	.22	-	.22
모의 통제적 양육행동	-.21	-	-.21
모의 애정적 양육행동	-	.13	.13
아동의 성	-	.09	.09
아동의 연령	-	.06	.06



<그림 2> 아동의 자기통제와 관련변인의 인과모형 경로분석 결과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아교육기관에 다니는 5세와 6세의 학령전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자기통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아동의 연령, 성 사려성과 자아개념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선정하고 이들 변인들 간의 상호인과관계를 분석하고자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결과를 요약하고 선행연구와 관련지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자기통제와 사려성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 아동의 사려성이 높을수록 자기통제도 높음을 의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사려적이고 신중한 아동이 자기통제도 높으며(Kendall & Wilcox, 1979) 자기통제는 사려성과 병행해서 발달된다는 주장(Macoby, 1980)에 의해 지지된다. 또한 충동적인 아동보다 사려적인 아동이 만족지연 능력이 높다는 선행연구(이미라, 1999; 허수경·이경님, 1996)와도 일맥상통한다. 이로써 상황을 검토하며 심사숙고하여 상황적 요구에 적절히 행동할 수 있는 사려성은 자기통제를 높이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동의 자기통제는 사회적 자아개념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즉 친구와 잘 어울리며 잘 적응한다고 지각하는 아동은 자기통제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개념이 높은 아동이 자기통제도 높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Flynn, 1984; Lowerstein, 1983)과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는 학문적, 사회적, 가족적, 정서적 자아개념의 영역별로 분석하였던 바 사회적 자아개념만이 아동의 자기통제와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 학령전 아동을 대상으로 자기통제와 자아개념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찾지 못하여 이와 관련한 직접적인 논의는 어렵다. 그러나 친구로부터의 사회적 지지지각이 학령기 아동행동과 적응에 중요한 변인임을 지적한 연구(한미현, 1996)와 관련지어볼 때 학령전기 아동에서도 친구와의 관계가 원만하며 친구들이 자신을 좋아한다고 지각하는 아동이 친구와의 관계에서 공격적 행동이나 다투는 행동을 자제하며, 자신을 잘 통제할 수 있지 않나 유추할 수 있다. 하지만 단정적인 해석은 무리이므로 자기통제와

자아개념간의 많은 후속연구가 이루어져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고 본다. 아동의 자기통제와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은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여 어머니가 아동에게 권위주의적이고 통제를 많이 할수록 아동은 자기통제가 더 낮아지는 것을 의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통제적이고 거부 적대적인 부모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자기통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안미경, 1996; Feldman & Wentzel, 1990)과 일치하였다. 이는 적절한 통제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바람직한 성품이나 적응에 도움이 되나(Baumrind, 1991) 전체적이고 엄격한 통제적 양육행동은 오히려 아동이 상황에 적절한 통제적 행동을 하는데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부적응을 야기 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아동의 성은 자기통제와 유의한 정적상관을 나타내 남아보다 여아가 자기통제가 높음을 의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남아보다 여아가 자기통제가 높다는 선행연구(Kendall & Wilcox, 1979)와 일치하였다. 그러나 아동의 자기통제는 성과는 관련이 없다는 연구들(허수경·이경님, 1996; Schwarz, Schrage & Lyons, 1983)과는 일치하지 않았다. 이와같이 자기통제와 성에 관한 일관성 없는 연구결과들은 각 연구마다 자기통제 측정의 중심행동이 다르거나 측정방법의 상이함에 근거하지 않나 유추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 자기통제의 성별에 관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져 이를 밝힐 수 있어야 하겠다.

둘째, 아동의 자기통제는 사려성이 높을수록 사회적 자아개념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덜 통제적일수록 높게 나타났고 이들 변인들의 자기통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20%였다. 이들 변인 중 사려성이 자기통제에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 사회적 자아개념,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 순으로 자기통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아동의 사려성이 자기통제에 직접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아동의 사려성을 종속변인으로 한 결과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애정적일수록 사려성은 높게 나타났다. 이들 변인들의 사려성에 대한 영향력은 22%였다. 이 중 연령이

더 큰 영향력을 보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학령전기 동안 아동의 사려성은 뚜렷하게 증가한다는 선행연구(Messer, 1976)의 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학령전기 동안 아동의 사려성은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동의 사려성이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합리적이고 애정적인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사려성과 관계가 있다는 보고(차의화, 1985)와 일치하였다. 그러므로 애정적이고 수용적인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사려성을 높여주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아동의 학문적 자아개념, 가족적 자아개념과 정서적 자아개념은 연령에 의해 영향을 받았으며 5세 아동보다 6세 아동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의 학문적 자아개념, 가족적 자아개념 및 정서적 자아개념은 5세에서 6세 아동에 걸쳐 더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학령전기 동안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자아개념이 낮아졌다는 연구(주리분, 1982), 3세와 4세간에 높아졌다가 4세를 기점으로 낮아진다는 연구(김재봉, 1986)와는 일치하였으나 학령전 아동의 연령에 따라 자아개념에 차이가 없다는 선행연구(김영희, 1998; Attenborough & Jeds, 1973)와는 상반되어 일관성이 없었다. 그러므로 학령전 아동의 자아개념 발달의 일관성 있는 경향을 보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좀더 심도 있는 후속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아동의 사회적 자아개념과 가족적 자아개념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애정적일수록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따뜻하고 애정적인 양육행동은 아동의 자아개념을 높여주며(김경연, 1987; Anderson & Hughes, 1989) 바람직한 적응에도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주장(Baumrind, 1991)과도 일치한다. 한편 어머니의 애정적, 통제적 양육행동은 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는 남아보다는 여아에 더 애정적이며 여아보다 남아에 더 통제적 양육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은 연령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학령전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더 통제적 양육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학령전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어머니는 더 통

제적 양육행동을 보인다는 결과(유우영·이숙, 1998)와 일치하였다.

셋째, 회귀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아동의 자기통제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들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아동의 사려성은 자기통제에 직접적으로 가장 큰 긍정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총 효과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자기통제에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통제의 구성요인으로 사려숙고성이 가장 설명력이 큰 요인임을 밝힌 연구(이경남, 2000)와도 일치하였다. 즉,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상황을 검토하며 곰곰이 생각하여 행동하는 사려성은 자기통제에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자기통제가 낮은 아동의 자기통제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사려성 증진 훈련 프로그램이 유효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아동의 사회적 자아개념은 자기통제에 두 번째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이 자기통제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사려성과 사회적 자아개념을 통하여 자기통제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직접적인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만족을 지연시키며 충동과 욕구를 통제조절하며 적절한 행동을 하는데,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고(안미경, 1996; Silverman & Ragasua, 1991)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기통제에 직접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주는 사려성과 사회적 자아개념을 매개로 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 역시 자기통제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변인이라 생각된다. 아동의 성은 자기통제에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을 매개변인으로 간접적 영향을 주었다. 또한 아동의 성은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을 통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기통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즉, 아동의 자기통제는 남아와 여아의 경우에 다르게 영향을 받았는데 남아의 경우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더 통제적이었으며, 이러한 양육행동은 자기통제에 간접적

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또한 여아의 경우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더 애정적이었으며 이러한 애정적 양육행동은 사려성과 사회적 자아개념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어 여아의 자기통제에 간접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한편, 아동의 연령은 자기통제에 사려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을 통하여는 간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의 증가와 함께 아동은 사려성이 증가하여 자기통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더 통제적이 되어 자기통제에 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체적인 효과는 약하지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아동의 연령이나 성에 따른 어머니의 애정적, 통제적 양육행동과 자기통제에 관한 선행연구는 많지 않아 이러한 해석은 단정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학령전기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자기통제와 관련 변인에 관한 많은 후속연구가 이루어져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일반화의 여부를 밝힐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자기통제는 아동의 사려성과 사회적 자아개념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덜 권위주의적이고 덜 통제적일수록 높았으며 이들 변인들은 자기통제를 20% 설명하였다. 둘째, 아동의 자기통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와 총 인과 효과는 사려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아동의 사려성은 자기통제를 높여주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그 다음 아동의 사회적 자아개념,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 아동의 성, 연령의 순으로 자기통제에 대한 인과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사려성, 사회적 자아개념과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자기통제에 직접효과만 나타났다.

셋째, 아동의 자기통제에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사려성과 사회적 자아개념을 증진시켜 자기통제를 높여주는 간접효과가 나타났다. 아동의 성은 자기통제에 다르게 영향을 미쳤는데 남아의

경우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을 매개변인으로 간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여아의 경우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을 매개변인으로 간접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연령은 아동의 사려성과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아동의 자기통제에 간접효과만 나타났으며 직접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자기통제에 영향을 주는 아동 개인적 변인으로 연령, 성, 사려성과 자아개념을 가족환경변인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선정하여 이들의 상호관계 및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그런데 어머니의 양육행동 외에 어머니의 심리적 문제 가정분위기와 같은 가족환경변인과 아동의 기질과 같은 아동의 정의적 개인변인도 중요한 변인임으로 이러한 변인들이 포함된 복합적 모형을 분석하는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는 횡단적 연구에 그치고 있으나 후속연구에서는 아동의 자기통제행동의 인과관계를 보다 상세히 규명할 수 있는 종단적 연구가 요청된다.

■ 참고문헌

- 공인숙(1989). 부모의 온정 및 통제와 아동의 역량에 대한 자기지각.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경연(1989). 부모의 아동평가 자아존중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선희, 김경연(1999). 아동의 행동문제와 관련변인간의 인과관계. 가정관리학회지, 17(1), 155-166.
- 김양현(1987). 자기통제법과 외적통제법이 학업성적의 향상과 긍정적 자아개념의 형성에 미치는 효과.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영희(1998). 유아의 자아개념과 적응과의 관계. 미래유아교육학회지, 5(1), 215-234.
- 김유신(1992). 의도조망 발달과 논리적 사고 및 사려성과의 관계.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재봉(1986). 3, 4, 5세 유아의 자아개념발달에 관한

-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성연, 이숙(1990).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 표준화를 위한 예비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8(1), 141-156.
- 박영애(1995). 부모의 양육행동 및 형제관계와 아동의 자존감과와의 관계.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송명자(1995). 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 송인섭(1993). 유아용자아개념검사. 서울: 학지사.
- 안미경(1996). 아동의 자기조절능력 및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행동간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우영, 이숙(1998). 유아의 사회적 적응과 관련변인간의 인과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6(10), 65-78.
- 은혁기(1992). 자기통제법이 유아의 문제행동수정에 미치는 효과.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경님(1997). 인지적-행동적 자기통제훈련이 아동의 자기통제 능력과 과제수행능력의 개선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0(1), 123-143.
- 이경님(2000). 아동의 자기통제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인간발달연구*, 7(1), 99-120.
- 이미라(1999). 아동의 인지양식 및 어머니 양육행동과 아동의 욕구충족지연행동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수연(1985).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욕구충족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주리분(1982). 유아의 자아개념과 가정환경변인간의 관계.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차의화(1985).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사려성-충동성 인지 양식과의 관계.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미현(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 지각과 행동문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허수경, 이경님(1996). 인지양식유형과 보상의 제시 형태에 따른 아동의 만족지연능력 발달. *아동학회지*, 17(2), 221-233.
- Anderson, M., & Hughes, H. M. (1989). Parenting attitudes and the self-esteem of young children.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50, 463-465.
- Attenborough, R. E., & Zedp, S. M. (1973). Self-image among a national probability sample of girls. *Proceeding of the 81st Annual Convention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8, 237-238.
- Baumrind, D. C. (1991). The influence of parenting style on adolescent competence and substanc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1, 56-95.
- Berk, L. L. (1997). *Child Development*(4th). Allyn and Bacon.
- Block, J. J., & Herrington, D. M. (1986). More misgivings about the MFFT as a measure of reflection-impulsivity: Absence of construct validity in pre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22, 820-832.
- Feldman, S. S., & Wentzel, K. R. (1990). Relations among family interaction patterns, classroom self-restraint and academic achievement in preadolescent boy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2(3), 813-189.
- Fitzpatrick-Doyle, T. (1990). An Evaluation of the reliability and construct validity of a measure of self-control.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51(2-8), 1013.
- Flynn, T. M. (1984). Affective characteristics that predict preschool achievement in disadvantaged children. *Early Child Development & Care*, 16(3-4), 251-263.
- Harter, S. (1983). Developmental perspectives on self-system. In P. H. Mussen(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4thed., Vol.4. 275-385). N. Y.: John wiley & Sons.
- Humphrey, C. C. (1982). Children's and teacher's perspective on children's self-control: The development of two rating scales. *Journal of Consulting & Clinical Psychology*, 50, 624-633.
- James, W. (1963). *Psychology*. N.Y.: Fawcett,

- (originally published, 1890).
- Kagan, J. (1966). Reflection-impulsivity: The generality and dynamics of conceptual tempo.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71*, 12-24.
- Kanfer, F. H., & Goldstein, A. P. (1991). *Helping People Change. A textbook of methods*(5th). Pergamon Press.
- Kendall, P. C., & Braswell, L. C. (1985). Cognitive-behavioral self-control therapy for impulsive children. New York: Guilford Press.
- Kendall, P. C., & Wilcox, L. L. (1979). Self-control in children: Development of rating scale. *Journal of Consulting & Clinical Psychology, 47*(6), 1020-1029.
- Kopp, C. B. (1982). The antecedents of self-regulation: A developmental perspective. *Developmental Psychology, 18*(2), 199-214.
- Lowerstein, L. F. (1983). Developing self-control and self-esteem in disturbed children.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4*, 229-236.
- Maccoby, E. E. (1980). Social Development: Psychological growth and the parent. *Child relationship*. N. Y.: Marcurt Brace Javanovich.
- Messer, S. B. (1976). Reflection-impulsivity: A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83*, 1026-1052.
- Mischel, W. (1983). Toward a cognitive social learning conceptualization of personality. *Psychological Review, 80*, 252-283.
- Mischel, W., Shoda, Y., & Peake, P. K. (1990). The nature of adolescent competencies predicted by preschool delay of gratific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687-696.
- Olsen, S. C., Bates, J. E., & Bayles, K. C. (1990). Early antecedents of childhood impulsivity.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8*(3), 317-334.
- Rose, A. (1991). The relationship of self-controlling skills to personal and social adjustment in elementary school-aged children. Doctorial dissertation, Biola University.
- Schwarz, J. C., Schrage, J. B., & Lyons, A. E. (1983). Delay of gratification by preschoolers: Evidence for the validity of the choice paradigm. *Child Development, 54*, 620-625.
- Silverman, I. W., & Ragusa, D. M. (1991). Child and maternal correlates of impulse control in 24-month-old children: Correction. *Genetic Social & General Psychology Monographs, 117*(3).
- Wentzel, K. R., Feldman, S. S., & Weinberger, D. A. (1991). Parental child rearing and academic achievement in boys. The mediational role of social-emotional adjustment.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1*(3), 321-339.